

'광치복합문화센터' 신생활거점 안착

남원시, 산단 근로자 위해 복합문화동·기숙사동 조성... 복합 생활공간 자리매김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광치·2농공단지 근로자의 문화·복지·편의·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조성한 '광치복합문화센터'가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복합 생활공간으로 안착하며 농공단지 근로자들의 하루를 든든하게 받쳐줄 새로운 생활거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지난 2025년 11월, 총사업비 75억 원을 투입해 광치산업1길 9(광치동) 일원에 대지면적 3,556㎡, 건축면적 766.53㎡, 연면적 1,894.34㎡ 규모로, 복합문화동과 기숙사동 2개동의 광치 복합문화센터를 조성했다.

복합문화동은 건축면적 464.36㎡, 연면적 945.20㎡ 규모이며, 기숙사동은 건축면적 302.17㎡, 연면적 949.05㎡ 규모로 조성돼 근로자의 여가, 학습, 운동, 식사, 주거 기능을 지원한다.

복합문화동에는 북카페, 평생학습실, 상담실, 코인세탁실, 다목적홀, 체력단련실 등이 마련, 근로자들은 퇴근 후 책을 읽고 운동하고 배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일상 속 휴식을 누릴 수 있다.

기숙사동에는 구내식당, 편의점, 기숙사가 들어섰다. 특히 기숙사는 총



광치복합문화센터 전경

12실 규모로 조성돼 광치·2농공단지 근로자는 물론 사매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이는 관의 근로자와 청년 근로자의 주거 부담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남원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인력 확보와 기업유치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운영은 산업단지협의회가 맡고 있으며, 남원시는 올해 1월 산업1단지협의회와 광치복합문화센터 시설 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민간위탁 방식으로 센터를 운영한다.

남원시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광치복합문화센터 기능 보강 공사를 마쳤으며, 3월부터 요식업체 모집을 거쳐 구내식당 운영을 시작, 현재 구내식당은 하루 150여 명이 이용하며 산업단지 근로자의 식사 편의를 높이는 등 운영 초기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학촌농요가치·발전방안 모색

학술세미나 열려

순창학촌농요의 학술적 가치와 전승·보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26 순창학촌농요 학술세미나'가 지난 27일 순창군민예술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순창학촌농요의 가치와 발전방안'을 주제로 학계 전문가와 지역 문화예술인,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순창학촌농요가 지역의 역사와 공동체 정신을 담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데 뜻을 함께하며, 지속 가능한 전승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어 최동현 군산대학교 명예교수가 '순창의 음악적 전통과 판소리'를 주제로 기조발표를 진행하며 순창의 음악적 전통과 농요, 판소리의 학술적 의미를 조명했다.

주제발표에서는 △권오경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의 '순창 건국리 학촌농요 후렴구의 특징과 의미', △노복순 전북도립국악원 교육학예실장의 '순창 학촌과 임실 말천방 들노래의 음악



비교 고찰-논매기 소리를 중심으로', △권도희 경북대학교 교수의 '학촌농요의 발전 방향과 지향점'이 차례로 발표됐다.

종합토론에서는 학촌농요의 학술적 연구 확대와 무형유산으로서의 체계적인 보존, 지역문화 콘텐츠와 연계한 활용 방안 등이 제안됐다. 참석자들은 학촌농요가 지역 정체성을 대표하는 문화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한편, 학술세미나 종료 후에는 순창학촌농요 정기공연 개최식이 이어져 학촌농요의 전통과 예술성을 현장에서 체험하는 시간을 마련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순창=이영원 기자

순창군, 노후 건물번호판 교체

순창군이 군민들의 도로명주소 이용 편의를 높이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 건물번호판 교체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주소정보보시소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탈락이나 훼손 등으로 식별이 어려운 건물번호판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계면과 동계면, 풍산면, 적성면, 유등면 일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노후되거나 훼손된 건물번호판 1,016개를 새롭게 교체할 계획이다.

건물번호판은 건축물의 도로명주소를 표시하는 주소정보시설로, 일상생활은 물론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군은 이번 정비를 통해 주소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도로명주소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방침이다.

사업은 오는 10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비가 완료되면 주소정보 이용 편의 향상은 물론 도시미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창=이영원 기자

임실군수직 인수위, 업무보고·현장점검 마무리

민선9기 임실군수직 인수위원회가 부서별 업무보고와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을 마무리하며, 민선9기 군정 운영방향과 핵심 정책 구체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수위원회는 지난 6월 17일부터 25일까지 임실치즈테마파크 지정환홀에서 25개부서와 읍면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군정 전반의 주요현안과 공약 연계사업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민선9기 공약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재원확보방안을 비롯해 조직 운영과 인사 시스템, 농업·경제·관광·복지 등 분야별 주요현안, 지역경제 활성화, 농촌 고령화 대응, 생활SOC 확충, 주민 생활 불편 개선 등 군민 삶과 직결되는 다양한 정책과제가 폭넓게 논의됐다.

특히, 인수위원들은 단순한 업무 추진 현황보고에 머무르지 않고 사업별 정책 효과와 추진과정의 문제점, 현장 수요, 예산 투입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정책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업무보고를 마친 인수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사선대와 성수산 왕의숲 자연휴양림, 오수의견관광지, 오수공공휴수처리장, 정신재활시설 '동행' 등 주요사업장 5개



소를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확인도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주요 정책과 사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행정이 미처 살피지 못한 현장의 목소리를 향후 군정 방향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수위원회는 이번 업무보고와 현장 확인을 통해 도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민선9기 군정 비전과 공약 실행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우선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장직 인수위, 해단식 끝으로 공식 활동 마무리

민선9기 남원시장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최용택)가 29일 해단식을 끝으로 21일간의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인수위원회는 양충모 당선인과 인수위원, 자문위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활동 결과보고 및 해단식을 개최했다.

지난 6월 9일 출범한 인수위원회는 시장 전반에 대한 업무 인수와 함께 민선9기 시장 운영 방향 설정, 공약사업 구체화, 주요 현안 점검 등 새로운 시장 출범을 위한 준비에 역량을 집중해 왔으며, 담당관·기획조정실을 비롯해 문화관광교육국, 미래산업농정국, 행정복지국, 안전건설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 전 부서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시장 현황과 주요 현안사업을 면밀히 점검했다.

또한 분야별 분과회의와 공약사업 재원 확보 방안, 우선 추진과제를 점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시장 현황과 주요 현안사업을 면밀히 점검했다.

특히 인수위원회는 민선 9기 시장 비전을 시민과 함께하는 경제도시 남



원'으로 확정하고, 시민주권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기반 구축, 문화관광 경쟁력 강화, 청렴행정 실현 등 시장 운영의 핵심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공약사업 실행계획과 정책 제안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마련해 민선9기 시장의 성공적인 출범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용택 인수위원장은 "인수위원회의 정책 제안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인수위원회가 시민의 뜻을 담아 민선 9기 시장의 든든한 밑거름을 그려주었다며, 시민과 함께하는 경제도시 남원 실현을 위해 인수위원회의 정책 제안을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남원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6.25전쟁 제76주년 기념식 안보결의대회 열려

6.25참전유공자 임실군지회(회장 정재수)는 최근, 임실문화원 공연장에서 6.25전쟁 제76주년 기념식 및 안보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6.25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조국을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념식에는 한독수 당선인과 박영수 부군수, 장종민 의장 및 박정규 도의원을 비롯해 참전유공자, 유가족, 보훈단체 회원, 군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참전유공자 표창 수여, 기념사, 6.25노래 제창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어진 안보결의대회에서는 안보결의문 낭독과 함께 참석자 전원이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박영수 부군수는 기념사를 통해 "참전용사들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도록 배우고, 존경받는 보훈 문화가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발효맥주 홍보루임 교육 성황리 마무리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사장 최영일)은 발효맥주에 관심 있는 순창군민 20명을 대상으로 운영한 발효맥주 홍보루임 교육과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지난 4일부터 25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4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맥주 제조 이론부터 실습까지 체계적인 홍보루임 과정을 이수했다.

이번 교육은 순창군이 지역 발효식품의 영역을 확대하고 글로벌 식문화 트렌드에 발맞추기 위해 새롭게 마련한 홍보루임 맥주 인력양성 과정이다. 단순한 이론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군민들이 직접 맥주를 만들어보는 실습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돼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교육생들은 맥주의 역사와 홍보루임 기초 이론을 시작으로 세계 맥주의 종류와 특징을 배우고, 맥주 제조 실습까지 양조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익혔다.

/순창=이영원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